

기 도 . . . . . 설 교 자  
찬 송 . . . 559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 . 다 갈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 도 문 . . . . .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나누는

추석되세요.

추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서광교회

풍성한 결실의 계절,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 도 신 경 . . . .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 .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 . .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 도 . . . . . 말 은 이

성 경 봉 독 . . . . . 신명기 16:13~15 . . . . . 인 도 자

- 13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 14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 15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설 교 . .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 . 설 교 자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온 가족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우리 민족의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추석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거둔 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석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다. 광야에서 지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  
이심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온 것, 일할  
수 있었던 것, 어려운 순간을 지나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큰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기도해도 쉽게 해  
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  
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는 없는 것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는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면서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은 나  
에게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족  
에게 나누고, 받은 위로를 힘든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건강하게 있어 줘서 감사해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복 가운데 참 귀한 복은 오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의 식탁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서  
로 나누며 살아갑시다.

우리 가정의 식탁에는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대화에는 사랑이 넘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